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자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자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자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자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자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자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자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14주일(7월 9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마태 11,25-30)



살바토르 문디 Salvator Mundi

살바토르 문디는 라틴어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림 속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온 세상을 상징하는 크리스탈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림 엘 그레코 | 1541-1614년, 캔버스 위 유화, 73x56.5cm, 스코티쉬 국립 미술관, 영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 속에 머무르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 11,27)

나의 능력이나 재능,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느님보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을 열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열망하기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망을 잠시 중단하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릴 때에 하느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몸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던 그 무언가를 잠시 중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을 향해 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안식의 시간을 거룩하게 축성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몸과 마음을 쏟아붓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흐름에 실려 어딘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그것이 발전이고 성장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는 끊임없이 더 앞에 있는 것을 만나기는 하

지만, 정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는 것이 바로 쉼의 명에이고, 이 명에를 감당해야 만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고, 하느님께 지친 영혼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15주일(7월 16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마태 13,1-23)



씨 뿌리는 사람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 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마태 13,4-6,8)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물질이나 욕망으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며 삶 안에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곧, 관대한 삶,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7. 13.)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56번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 속에 머무르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마태 13,25)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데 방해받고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마태 13,19)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그 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씨를 잘 골라 내어야 하고, 뿌리기 전에 씨를 관리하고 발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땅을 갈고 고른 뒤에 그 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에 나오는 농부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씨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 앞서 좋은 씨들만을 모아 뿌리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좋은 것들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다음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좋은 것들을 담아주신 좋은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땅 안에 머무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안에 머무르는 삶,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담긴 이 좋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좋은 것들이 큰 축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땅 안에서 잘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00번 “열렬하신 주의 사랑”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비상을 꿈꾸는 월남동성당 소공동체

월남동성당 구역위원장 이종선(레나타)

2017년에 본당 설립 60주년을 보낸 월남동성당은 연륜으로는 거목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릇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거목은 고목의 시린 아픔을 품고 있기에, 교우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자칫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어르신들의 많은 기도가 뒷받침되고, 수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젊은 교우들의 고택을 가꾸는 것 같은 헌신적인 봉사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소공동체는 7개 구역 1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는 본당 구역 내에 있으며, 7구역은 구역 외 신자들입니다. 7구역의 구역 외 신자들이 많지만, 여건이 어려워 소공동체 모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구역 내 현존하는 소공동체들도 코로나19로 사실상 붕괴 상황에 직면하여, 매달 각 가정을 방문하여 친교를 나누던 소공동체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소공동체 모임이 서서히 부활하였으나, 가정 방문의 모임은 아직 이르지 못하고 본당 교리실로 자리를 옮겨서 겨우겨우 지탱해 가고 있



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역 외 신자들을 영입하여 소공동체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고, 나아가 과거 그리스도 신앙이 박해로 인하여 세계 곳곳으로 뿔어가는 계기가 된 사실과 우리나라 박해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느님의 섭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 그동안 엄두도 못 내었던 본당의 날 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편의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교구 교육관에서, 더욱 격조 높은 본당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전 교우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당에 여러 가지 행사 중, 특히 본당의 날 행사를 치를 때마다 구역구성원들의 식사 준비로 구역장 소공동체들은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관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보다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버스 3대 대절, 교육관 대관료, 식사비, 간식, 상품비 등을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본당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지만 이를 인지한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기도와 함께 찬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정성이 모여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 우리 본당에도 이루어져, 풍족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60여년이 넘는 인고의 긴 세월 수많은 상처를 안고 거목으로 성장한 우리 월남동성당! 하느님의 은혜 속에 큰 날개 활짝 펴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어 봅니다.

「전례주년의 기능은 무엇인가?」

전례주년 안에서 교회는 강생에서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거행한다. 아울러 정해진 날에 교회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도 기억한다.

해설

전례주년 곧 대림 시기로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는 우선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 하나를 전체적인 관련성 안에서 경축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여러 축일도 경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조명된다. 성인 축일도 마찬가지인데, 성인들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 곧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이므로 전례주년의 큰 틀 안에서 기리게 된다.

용어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

동정 마리아의 가장 빛나는 칭호다. 마리아는 복된 분이며(루카 1,42.48) 하느님의 어머니(루카 1,43 참조)로 공경받는다. 복되신 마리아, 천주의 성모 축일은 성탄 8일 축제의 끝인 1월 1일에 지낸다.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시간 전례란 무엇인가?」

교회의 공적이며 통상적 기도인 시간 전례(성무일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시간 전례를 통하여 매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 기도는 주로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 그리고 교부들과 영성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오늘 하루는 거룩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매우 좋은 시간이다. 교회는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시간 전례를 마련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루카 18,1 이하)과, 사도(1테살 5,17)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시간 전례는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삼시경·육시경·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로 되어 있다.

용어

시간 전례 또는 성무일도

시간 전례 또한 전례 곧 온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다. 성무일도(거룩한 업무)라고 한 것은 성직자들이 매일 꼭 바쳐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왔지만, 이제는 성직자나 수도자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바쳐야 하는 전례적 기도이므로 ‘시간 전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교부들과 영성가들

초기 교회의 스승이자 저술가들을 교부라 부르며, 성령 안에 새 삶을 산 거룩한 사람들을 영성가라고 부른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